

대학가 주변 그린캠퍼스 활성화 방안

음영철^o

^o삼육대학교 교양학부

e-mail: sangoma@syu.ac.kr^o

The Way of Activating the Green Campus around the University

Yeong-Cheol Eum^o

^oDivision of General Studies, Sahmyook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는 학생 주도 하에 대학가 주변 그린캠퍼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대학가 주변은 주로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넓은 의미에서 그린캠퍼스에 포함될 수 있다.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차원에서 볼 때 대학가 주변에 분리 쓰레기통 설치하는 필요하다. 그러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 S대학의 사례는 이에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키워드: 그린캠퍼스(Green Campus),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협상(negotiation)

I. Introduction

그린캠퍼스(Green Campus)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대학을 일컫는 말이다. 2011년부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그린캠퍼스 지정 대학에 친환경 경영, 친환경 교정 구축, 친환경 인재 양성, 친환경 생활 실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연간 4천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린캠퍼스를 원하는 대학은 다음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선정이 가능하다. 첫째, 환경친화적인 캠퍼스를 위해 녹지공간 외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 등과 같은 실천운동을 해야 한다. 둘째, 대학생들은 각종 수업과 교내 캠페인을 통해 해당 학문을 숙지하고, 지역 환경 정화와 같은 실천을 통해 친환경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생활 체험시설과 생태탐방로, 자치체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친환경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1].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둘째에 해당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해당 학문을 숙지하고 지역 환경 정화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친환경 인재로 성장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좁은 의미의 그린캠퍼스 만들기에서 벗어나서 지역 사회와 연계된 그린빌리지 가꾸기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II. The Main Subjects

1. 대학 주변의 그린캠퍼스 활성화 방안

최근까지 대학 캠퍼스는 건물 증축으로 인하여 도심 내의 부족한 녹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친환경공간의 축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의 낭비 및 생태계 파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캠퍼스를 푸르게 가꾸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대학 내의 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친환경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2].

유럽과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성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학별 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반면,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활동이 매우 미흡하였다. 2008년 말 이와 관련된 협의체가 구성되어 대학의 녹색경영추진, 그린캠퍼스 조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지속가능성 교육과 연구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와 활동이 병행되었다[3].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그린캠퍼스 평가기준 또한 건물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척도에서 행해지고 있다. 크게는 세 가지 분야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토지 이용 및 교통이고 둘째는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의 보호 분야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분류 하에 다시 중분류를 하고 기중치와 배점을 매겨 그린캠퍼스를 측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 중에서도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분야이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활성화 방안이다. 그린캠퍼스 가 사업이 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인접 경계에 위치한

대학가 주변환경도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린캠퍼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학교 인원에서 거주하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학생들이 주로 거니는 대학가 주변 도로라든지 음식점 등은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수 없는 항목이다. 따라서 캠퍼스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처리 문제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학과 대학주변지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2. 관학협상 사례로 본 그린캠퍼스 조성

S대학은 노원구와 남양주시 경계에 위치한 대학으로 정문보다는 후문 쪽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활동한다. 대학가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그린캠퍼스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학생 주도로 쓰레기통 설치를 건의하였다. 쓰레기통이 설치된다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이로 인해 그린빌리지라는 이미지가 개선되어 상권도 좋아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 대학가 주변에 이미 설치된 쓰레기통으로 분리수거가 종별로 된 대학가도 있지만 분리배출이 어려운 쓰레기통도 볼 수 있다.



Fig. 1. The Trash Bin Pictures of Streets around the University

학생이 주도하는 대학가 주변의 그린캠퍼스 운동은 이들 세 주체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S대학 학생들은 먼저 자치단체인 남양주시청을 찾아가 대학가 주변 그린캠퍼스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대학가 주변에 분리 쓰레기통을 설치할 때의 쟁점은 1) 비용의 문제 2) 관리의 문제 3) 가정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4) 재활용 쓰레기 분리 등이다. 대학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학가 주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때에 비용과 관리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설치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는 더 큰 문제이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주도의 협상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첫째, 분리 쓰레기통 설치에 삼육대학교에서 관리해주신다는 약속 하에 남양주시청에서 지원한다. 둘째, 분리 쓰레기통 관리는 S대학 학생처에서 주관하고 근로장학생이 한다. 셋째, 쓰레기통 설치 찬반 의견 수렴 및 분리 쓰레기통 위치 설정은 차후 통장과 상의한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는 좁은 의미의 그린캠퍼스 운영 방안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에서 대학가 주변의 그린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논의 결과 대학가 주변은 대학생들이 항상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동인구가 활발한 지역에 속한다.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이 필요하다. 특히 쓰레기의 재활용과 분리수거는 이제 대학 주변이라 해서 예외될 수 없다. 그러나 S대학에서 알 수 있듯이 분리 쓰레기통 설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주도가 되어야 하며, 관학 협상이 필요하다. 설치에 따른 비용은 남양주시청에서 부담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선결조건이 충족된다면 앞으로 그린캠퍼스는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주어 그린빌리지로 이어질 것이다.

References

- [1] <http://www.greencampus.or.kr/content/viewContent.action?cmscd=CM0008>.
- [2] Yoo Sung-Jun, Lee Jung-Hee, Yang Jeong-Hoon, Kwon Jong-Wook, "The Performance and the Challenge of the Student-led Green Campus Movement", Journal of KIAEBS, Vol. 2011, No. 3, 2011.
- [3] Cho, ki-chan, Seong, Soon-Taek, Yang, Seung-Woo,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for elements of Green Campus", Journal of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Vol. 12, No. 5, 2011.